



전주의 대표 절기행사인 '2019 전주단오' 행사가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전주단오 행사 공연 사진.

‘추억 잔치에서 푸지게 놀아보세~’

전주단오, 7일~8일 이틀간 전주덕진공원 일원서 진행
민속씨름경기·가족웃놀이 대회 등 풍성한 즐길거리 마련

덕진연못에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전주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전주의 대표 절기행사인 '2019 전주단오' 행사가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는 전주단오 행사는 천년전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주 시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시 풍속으로, 올해 행사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전주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단오기념식으로 문을 연 올해 전주단오에서는 단오풍류체험과 단오겨루기, 단오풍류공연, 부대행사, 특별행사 등 30여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먼저 단오풍류체험의 경우 △창포물에 머리

를 감으면 액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행해졌던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음식을 체험과 함께 맛보는 '단오 약쑥 인절미 떡메치기' △액운과 질병을 물리기 위한 세시풍속인 '오색실 팔찌 만들기'와 '단오 부적 찍기' △단오등에 소원지달기 등 전주단오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오겨루기에서는 단오날인 오는 7일 전주 시민이 참여해 단오씨름왕을 뽑는 단오씨름대회가 열리고, 전주시 35개동 주민들이 참여해 그네뛰기와 윷놀이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주말인 8일에는 대형웃놀이로 경연하는 가족웃놀이겨루기와 전통놀이체험이벤트가 행사기간 수시로 열려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과 여행객이 단오 세시풍속 체험을 할 수 있다. 단오풍류공연의 경우, △민요 △농악 △우리

춤 △댄스 △악기연주 △난타 △노래공연 등 30여 문화공연예술단체가 참여해 축제 기간 내 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동시에 선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단오에서는 부대행사로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어르신장수사진 촬영'과 '발관리서비스' △풍질과 가격이 좋은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동네프리마켓' △전주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상품홍보판매 행사 △전국의 훈공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9 세계민속축페스티벌' 등이 진행돼 단오의 흥을 한껏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단오 행사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면서 "단오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부풍울회, 석암문화대상·전국정가경창대회 성료

부풍울회(회장 김기성)는 최근 부안예술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제14회 석암문화대상 및 제22회 전국정가경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제14회 석암문화대상 및 제22회 전국정가경창대회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기 예능보유자인 부안 출신 석암 정경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다. 또 오늘날 대중문화에 문혀 잊혀져가는 정악을 대중화 시키고 전국의 우수한 정악인들을 발굴 육성해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고자 개최하는 전국대회이다.

시조는 신라 향가에 접맥해 고려 중엽에 그 형식이 갖춰져 조선시대에는 더욱 발전됐다. 특히 조선시대 여류 시인 중 으뜸으로 일컬어지는 이매창의 고향인 부안은 '정가 계'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는 석암 정경태 선생을 배출하기까지 찬란한 시조들을 꽃피우는 정가의 본고장이었다. 이번 대회는 을부(평시조 1곡), 갑부(사설시조 1곡), 특부(남녀 질음시조 2곡), 국창부(중허리시조, 각시조, 온질음시조, 역음질음시조 4곡), 가사가곡부(가사, 가곡, 시창 중 택 1), 가사·가곡 명가부(가사, 가곡, 시창

중 택1), 석암 문화대상(중허리, 우시조, 역음 자름, 평시조, 우조지름 5곡) 총 7개 부문으로 총 164명이 출전해 경쟁을 했고 총 68개의 상을 시상했다. 각 부문의 1위는 다음과 같다. 을부는 남원의 윤신이, 갑부는 공주의 이영, 특부는 군산 조유정, 국창부는 정음 박경규, 가사신인부는 순창 서경중, 가사명가부는 대구 류정임이며 석암문화대상 장원은 전주의 김인순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과 혼이 담긴 정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꿈의 나라를 피다!’

전북도 공예품대전 시상식 개최
입상작품 7일까지 도청서 전시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42회 전북도 공예품대전 시상식이 송하진 전북도 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진정옥 전북도공예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재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업협회장, 유관기관 대표 및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예품대전은 6개 분야 109점(작품 수량 682점)에 대하여 서동석 심사위원장(우석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12인의 심사위원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50명의 입상작품과 16점의 특별상 작품에 대해서 시상했다.

대상은 기타분야에 출품한 박미애씨의 '전통베개 액자', 금상은 김난희씨의 목·철분야 '솔타자', 은상 2명은 김종식씨의 목·철분야 '배화비녀'와 신덕순씨의 섬유분야 '사각사각', 동상은 이경희씨의 도자분야 '구절초 호롱' 등 4명을 선정되었다.

또한, 장려상은 정순금씨의 목·철분야 '나무와 팽이' 등 12명을 선정했고, 특선은 최정규씨의 목·철분야 '소반, 트레이' 등 10명, 입선은 함정식씨의 목·철분야 '섬비책상' 등 20명, 이 밖에도 김선기씨의 목·철분야 '돈개' 등 16명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대전 대상작품에 선정된 박미애씨의 '전통베개 액자'는 다양한 문양으로 수를 놓아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전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다양한 전달감이 있어 대다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대상을 수상한 박미애씨는 "고향의 특산품이자 전통 민수인 베개를 전통의 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꿈이 결실된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며 "우리 민수의 아름다움과 그 문양속에 담



전북도공예품대전 대상 '전통베개 액자'

긴 정신과 문화와 예술이 전승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입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각 70만원, 동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특선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후원기관장 상장과 상금, 입상작은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의 상장을 받게 되며

제49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과 디자인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전이 부여된다.

이번 공예품대전 입상작은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전북도청기획전시실(1층)에서 일박에 공개 전시중이며 과거 대상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하여 전북도 공예품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공예품대전 시상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공예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전북의 공예품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기원한다"면서 "도에서도 공예산업이 발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공예품대전 금상 '솔타자'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

방화동가족휴가촌